

종합

시의원 보좌관은 완장부대?

지나친 자료 요구에 폭언·고압적 질책 일쑤

광주시의회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고용된 보좌관들이 공무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하거나 고압적인 자세를 보여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개인 보좌관들의 지나친 행동에 반발한 광주시공무원노조는 최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을 면담한 뒤, 일부 보좌관들의 절차를 무시한 과도한 자료요구와 폭언 사례 등을 접수하는 등 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달 1600여건 달해... 주말·야간근무 빈번

광주시 공무원 노조 반발... 고발 접수키로

지난달 31일 광주시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올해 출범한 제6대 의회가 최근 한 달새 요구한 자료는 시정심의자료 924건, 행정사무감사 자료 729건 등이며 이 밖에도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보좌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도 수백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실과에서는 이들 자료 작성을 위해 직원들이 야간 및 주말 근무를 하고 있으나 제 때 제출하지 못하면서 보좌관들이 폭언을 퍼붓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담당직원을 질책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이종욱 광주시공무원노조 위

원장은 "현재 법적으로 시의원이 보좌관을 둘 수 없으며, 이들은 엄격한 일반인 신분인데도 마치 완장을 찬 것 같은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초선의원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1년 동안 시의회가 요구했던 자료를 이번 의회에서는 한 달도 안 돼 다 내놓으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 등 공무원 노조 간부들은 지난달 28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을 면담해 중보자료 및 법적 요건이 결여된 자료요구를 방지하는 사전 조정장치 마련, 집

행부의 성실한 자료작성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 제공, 고압적인 언행이나 보좌관 폭언 삼가, 근무시간 내 감사자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요구사항으로 판단돼 의원단회의 및 간담회에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공무원노조 측은 이 같은 보좌관들의 행태가 단기간 내에 시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직원들을 상대로 보좌관들의 문제 행동에 대해 고발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광주시의회와의 건전한 긴장관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지만 시의원 개인 보좌관들의 무리한 요구나 고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노조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최근 시의원 보좌관들을 편법으로 고용하기 위해 광주시에 의정 서포터즈 시범운영에 필요한 6억4300만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을 빚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5개 구청 계속 사업 총 16건 2124억 확정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지역산업기반 IT융합기술 생산지원기반 구축(230억원), 비엔날레 문화지구 조성(181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광주시 및 각 자치구의 계속사업 16건이 확정됐다. 이들 사업들은 향후 예산 확보 여부에 의해 착공 또는 개최 시기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개회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위원회에서 광주시 시행사업 12건과 자치구 시행사업 4건 등 총 16건에 2124억원 규모의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를 받아 모두 적정 또는 조건부로 승인됐다.

적정 판정을 받은 10건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160억원), 도시공원 시설 개선사업(154억원), 자동차 전장 기능부품 시스템 사업화

기반구축(78억원), 국제문화창의산업전(10억원), 남구 지식·삼정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설치사업(104억원), 북구 망월동 죽곡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78억원), 서구 자전거도도 인프라 구축(59억원) 등이다. 남구청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남구 종합청사 확보를 위한 미준공 건축물 매입사업(110억원)도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

조건부 가결된 6건 중 빛고을 문화관 건립(122억원), 진월도시순 조성(268억원), 진월운동장 조성(173억원), 광주보훈회관건립(45억원), 영주체육관주변 가로환경 디자인개선(292억원), 양산제~첨단단지 2단계간 도로개설(60억원) 등은 국·시비 지원결과에 따라 사업시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F1 잘못된 부분 과감히 개선"

박지사 '총체적 부실' 감사·문책 시사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F1(포틀러) 국제자동차경주대회와 관련, "조여촌 마을 하수도설치사업(104억원), 북구 망월동 죽곡마을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78억원), 서구 자전거도도 인프라 구축(59억원) 등이다. 남구청이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신청한 남구 종합청사 확보를 위한 미준공 건축물 매입사업(110억원)도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

박 지사는 지난달 29일 전남도 공무원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전남도청 공직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늦어진 공사와 매끄럽지 못한 대회 운영 때문에 대회가 끝난 지 1주일 이 다되도록 시끄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지사의 이번 언급은 전남도 공무원노조가 ▲경주장 건설 지연 문제 ▲입장권 판매 ▲교통 대책 등 F1 대회 운영 전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며 책임 규명을 요구한 뒤 나온 것이어서 사실상 '감사' 및 '문책'이 시작됐다는 평가다.

박 지사는 "대회를 앞두고 경주장을 둘러본 뒤 할 말을 잊었다"면서

"이러다가 대회 개최를 못하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가슴이 솟듯이 아찔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경주장 건설을 책임진 대회운영법인 KAVO의 경우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KAVO는 그동안 경주장 건설 지연에 따른 국내외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전까지 완공한다'고 장담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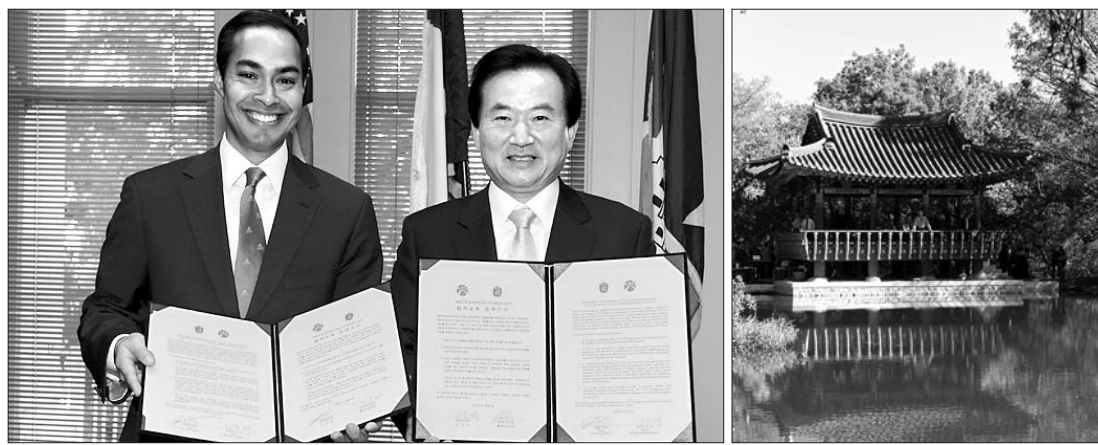
특히 가설스탠드 1만4000석을 설치하지 못해 관람객들이 이곳저곳으로 옮겨다니는 불편을 겪었는데도 변변한 '해명'조차 내놓지 않았다.

경주장 건설을 지원해온 전남도 F1 지원본부와 교통·수송 대책 등을 전담한 조직위원회까지 과장이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박 지사는 또 "대회기간 진창이 된 주차장이나 경주장 입구에서 상상하기 싫을 정도의 폭언·폭행을 당했고 (행사진행)유니폼을 벗어 버리면 욕을 덜 먹었지 하는 심정으로 유니폼을 숨겼다는 얘기도 전해들었다"면서 "구부러진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더 가까워진 광주시-美 샌안토니오시



샌안토니오시를 방문중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홀리양 캐스트로 샌안토니오시장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양도시간 실질적 교류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오른쪽 사진은 샌안토니오시에 건설된 '광주의 정자' 전경. <광주시 제공>

고교생 어학연수·대학생 인턴 등 MOU 체결

지난 1982년 자매결연한 광주시와 미국 샌안토니오시의 교류가 결실을 맺고 있다.

샌안토니오시를 방문중인 강운태 광주시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현지시간) 홀리양 캐스트로 샌안토니오 시장, 중·고·대학으로 구성된 학원그룹 UIW(University Of Incarnate Word) 루이스 아그네스 총장과 실질적 교류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지난달 UIW 산하 고교와 자매결연한 광주

살레시오 여고생 33명이 내년 1월 겨울방학 기간에 자매 고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현지 학생들과 3주간 공동수업을 받기로 했다.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문고 역시 샌안토니오 현지 어학연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03년 6월 UIW와 자매결연한 조선대를 비롯한 한 광주지역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 10명이 우선 내년 초부터 샌안토니오시 현지 주요기업에서 1년간 인턴사원으로 일하게 된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에 치러진 '광주의 정자' 준공식에서 강운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의 정자가 양 도시 간 우호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홀리양 캐스트로 샌안토니오시장은 "아름다운 광주의 정자를 지어준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광주의 정자'는 광주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남광건설(회장 김대기)이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의 우의 증진을 위해 자비 1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한국 전통 누각이다. /홍행기자 redplane@

"지방재정 확충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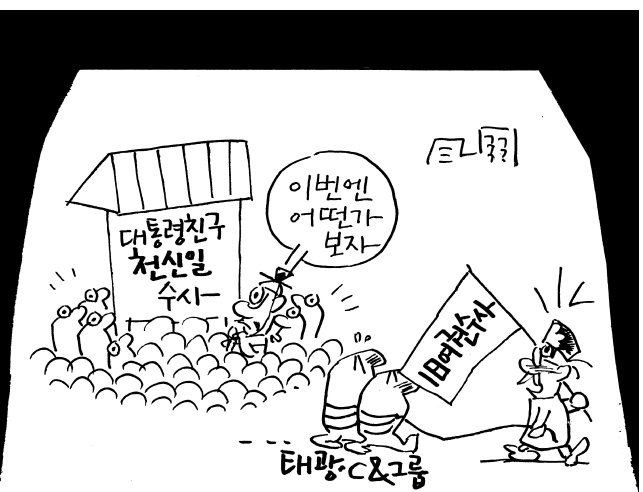
전국 기초 단체장 결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전북 무주리조트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확충을 요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협의회는 전국 228명의 기초 지자체장 일동으로 발표된 공동 결의문에서 현재 8대 2 수준으로 편중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수준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격차 해소와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현행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2%포인트 정도 인상할 것 등 3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최권일기자 cki@

빛日만평

- 김중두



관심도가 이렇게 다르다

訃告

和一大人原州李公勳東啓者 2010年 10月 30日 午前 10時 老患으로 別世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孫 子 孫 女 孫 子 孫 女

和 一 子 婦

李 金 金 洪 李 洪 林 姜 鄭 文 宗 昭 社 炫 明 東 智 榮 映 淳 賢 享 永 一 恩 倫 岸 珂 倫 益 植 勳 克 宙 實 美 助 姬 耕

所: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20호(틀리실)

發 訃 日 時: 2010年 11月 2日(火) 午前 5時 아산병원 장례식장

永 訣 日 時: 2010年 11月 2日(火) 午前 11時

永 訣 場 所: 전남 목포시 유달동 42번지 성호기념관

地: 全南海南郡 黃山面 富谷里 先塋下(하관직 午後 1시 30분~2시)

會社葬公告

當社 聲玉 李勳東 名譽會長啓者 2010年 10月 30日 午前 10時 老患으로 別世 하셨기에 永訣式을 會社葬으로 舉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朝鮮 耐火 業 株 (株) 全南日報 社
- 聲玉 產 業 株 (株) 大韓세라믹스
- 大韓燒結金屬 株 (株) 大宙 機 工
- 大田熱併合發電 株 (株) 韓 國 粉 體 工 株
- 株 和 仁 國 粉 體 工 株

聲玉文化財團 名譽理事長 原州 李公勳東啓者 2010年 10月 30日 午前 10時 老患으로 別世 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聲玉文化財團

聘儀金 및 弔花는 鄭重히 謝絶합니다

連絡處: (02) 3010-2631(민소)
(031) 710-3312(조선내화)
(061) 244-2527(성호문화재단)